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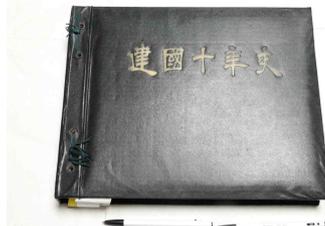
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을 최초 공개합니다

- 도서, 잡지, 엽서, 지도 및 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소장품 약 500점 확보
- 도서유형이 173점으로 가장 많아... '25년 개관까지 지속 확보 예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가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품을 최초로 공개하였다.
 -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되는 5개 박물관 중 하나로, 도시와 건축을 기본 테마로 하는 지상 3층·지하 2층, 연면적 22,155㎡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의 기획설계와 병행하여 박물관의 전시와 아카이빙을 위한 소장품 확보를 본격 추진해 왔다.
 - 소장품 확보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와 각계 전문가 참여 속에서 공개구매, 경매 및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.
 - 현재까지 도서, 잡지, 엽서, 지도 및 모형 등 건축과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소장품 약 500점이 확보되었다.
- 소장품 중에서는 도서유형이 전체의 약 40%(173점) 가장 많고, 구매 단가는 5만원 미만부터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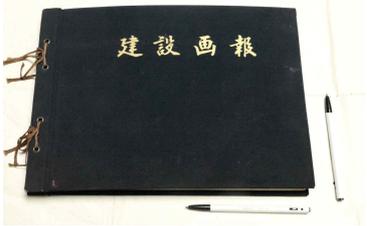
(종류) 도서
(명칭) 제2회 전국주택설계
현상당선작품집
(시기) 1959년



(종류) 도서
(명칭) “건국십년사” 화보책
(시기) 1958년



(종류) 도서
(명칭) 부산화력발전소기록사진첩
(시기) 1964년

		
<p>(종류) 도서 (명칭) 건설화보 (시기) 1958년</p>	<p>(종류) 도서 (명칭) 한국의 남부지역 철도교량 폭과 우선순위 목록 조사서 (시기) 1945년</p>	<p>(종류) 도서 (명칭) 제삼공화국 약진십년도감 (시기) 1970년</p>
		
<p>(종류) 팸플릿 (명칭) 반도호텔 팸플릿 (시기) 1958년</p>	<p>(종류) 팸플릿 (명칭) 경성안내 (시기) 1927년</p>	<p>(종류) 엽서 (명칭) 경성대관 (시기) 일제강점기</p>

○ 소장품 상세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‘공지사항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“건축과 도시 관련 분야의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 덕분에 가치 있는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”라면서,

○ “올해부터는 구매방식 다각화와 종류 다양화를 통해 박물관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소장품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	책임자	서기관	김용수 (044-201-3765)
		담당자	사무관	인병연 (044-201-3780)

